

내가 죽으면 장례식에 누가 와줄까

그것은 모두 착각으로부터 일어난 일이었다.

‘고 000님께서 2024년 1월 14일에 별세하셨기에 삼가 알려드립니다.’

받은 문자는 단 한 통이었다.

“왜 그래?”

여러 가지의 감정이 밀려온다.

첫 번째, 너무나도 비현실적으로 느껴져 믿기지 않는 황당함.

두 번째, 어떻게 이렇게 허망하게 떠나갈 수 있는지 허탈함.

세 번째, 너무나도 좋아했고, 함께 했던 그 순간들의 기억이 주었던 그리움.

우리가 처음 만난 건 8살, 초등학교 입학식이었다. 우리 동네에 작은 분교에서 전학생들이 모두 다 같은 교실에서 수업을 듣는 그런 곳이었다. 적색 벽돌담은 오랜 세월 색이 희거나 바래져 있었고, 교실 문을 열 때는 굵히는 소음을 내는 그런 장소였다.

“안녕? 반가워. 나는 000이라고 해. 나 여기 옆 동네 000리에 사는데 너는 어디에 살아?”

(고개를 반쯤 숙인 채) “안...녕... 나는 000이야. 나도 그 동네에 사는데... 반가워”

평소 조용하고 내성적이던 나와 달리 그 친구는 나에게 작지만 자신 있는 목소리로 말을 걸어왔다.

그런 사람이었다. 그 자신 있는 목소리와 인사가 너무도 밝아, 세상의 죽음이라는 것과는 멀리 동떨어져 있는 아이라고 생각했다. 어린 날이라 생각하지 못했을지도 모르지만, 어른이 된 후에도 나는 그 애를 죽음이란 단어와 엮어 생각해본 적이 없었다.

그런 사람이었다. 그 애는.

“.....어.”

단 한 단어로만 표현이 된다. 그 낯설고 익숙한 이름은 내게 더 이상의 할 말을 쉽게도 빼앗아 갔다.

집에서 검은 정장을 찾아 입는 동안 나는 다른 할 말을 찾지 못했다. 덤덤하다고 하기엔 그

낮설고 익숙한 이름이 주는 시간의 무게가 무거웠다.

이렇게 될 줄 알았으면, 시간이 없다는 핑계를 제쳐두고 생각이 스쳐지나갈 때만이라도 한 번 씩 연락할 걸

무엇이 너를 그 세상 차가운 죽음의 곁으로 데려간 걸까

나는 정신을 차릴 새도 없이 차에 올라타 어디까지 올라갈지 모르는 속도 계기판을 외면한 채 밟고 또 밟아 장례식장을 향했다.

‘대전 성심장례식장’

얼마간의 시간이 지났을까. 집을 나선지 얼마되지 않아 도착한 곳이다. 장례식장이라는 이름과 걸맞지 않게 건물 외관은 최근에 리모델링이 되었는지 화사하다고 할 만큼 하얗게 칠해져 있었다. 마치 그 친구의 얼굴이 떠오르는 듯 했다. 그 모습에 반가운 듯 슬픈 듯 알 수 없는 감정에 휩싸여 몇 분여간 호흡을 가다듬고서 건물 안으로 들어갔다.

‘000님의 장례식장은 특 1호실입니다.’

전광판에 띄워져 있는 알림을 보고서 그 친구가 기다리고 있는 2층으로 천천히 뚜벅뚜벅 걸어갔다.

생각보다 장례식이란 공간의 무게는 무겁지 않다. 아직 정리되지 못한 그 사람의 흔적 탓인지, 아니면 발인까지의 이틀이란 시간 때문인지는 몰라도 예상보단 무덤덤한 얼굴이 조문객을 맞이한다.

“.....어,”

같은 반응이었다. 내가 처음 그 문자를 받았을 때와 나를 보는 저 상주의 반응. 서로 슬퍼할 겨를을 찾지 못하고 속이는 어색한 인사.

엇겅겅에 신발을 벗고 사진 앞에 섰다. 깨끗하게 인쇄된 사진 속엔 커켜이 쌓인 세월이 선명하게도 드러났다. ‘하루’로는 느껴지지 않던 무게가 이렇게 쌓이니 그제야 알 것 같다.

아, 참 오래도 우리는 서로를 잊어서. 이젠 널 알아보지조차 못하게 되었구나.

사진을 보고 나서야 실감이 났나 보다. 괜스레 전일 먹은 술이 더욱 쓰게 올라오는 느낌이 든다. 뒤늦게 든 고개에 흐린 물방울이 맺혔다.

“00이랑은 어떤 관계셨어요?”

질문 하나에 여러 답을 생각했다. 흔하디흔한, 동네 친구라고 하기엔 더욱 가슴을 아리게 하는 것. 그 애는 내 어린 시절의 잔재였다.

시답지 않은 대화가 오갔다. '예의상'이라는 말들이 서로 주고받아진다.

상주와 주고받는 대화, 어딘지 모르게 같은 말을 하고 있으면서도 다른 듯한 느낌이 들었던 건 기분 탓이었을까

뒤돌아 보듯 다시금 되뇌여본다.

깊어지는 대화에 감정이 복받쳐 올라 참을 수 없어 소주 한 잔을 채워 들이킨 뒤, 한숨 한 번을 내뿜고 애꿎은 담배만 태우러 나간다.

이제는 그리워해도 돌아오지 않을 너일걸 알지만, 그래도 꼭 참고 울지 않을 거야.

'그 친구와의 추억을 한 대의 담배에 태워 없애듯, 그렇게 조금씩 잊어가야겠지...'

'그래. 마지막 한 번만 더 보고 가자!'

짧은 외마디의 외침처럼 마음 속으로 다짐을 하고선 묵묵히 분향소로 향했다. 그 친구는 여전히 미소짓고 있었으며 당장이라도 나의 이름을 부를 것만 같았다. 하지만 이 마음도 이제는 나에겐 사치가 되어버렸다. 친구와의 추억을 잊으려, 얼굴을 잊으려 애쓰는 마음으로 떨어지지 않는 발걸음을 옮기며 차로 돌아왔다. 속이 울렁거려 당장은 운전은 못할 것 같았다.

'주변에 바람 쐬 만한 곳이 어디지?'

다행히도 장례식장 바로 옆 만년교가 있었다. 마치 000의 추억을 영원토록 기억하라는 듯한 울림. 묵직한 마음을 한 움큼 안은 채 만년교로 향하던 도중이었다.

'000'

'아니? 이게 무슨 일이야.'

방금 전 장례식장에서 보고 온 그 친구의 이름이었다. 말도 안되는 일이었지만 일말의 희망을 가지고 통화버튼을 눌렀다.

그것은 모두 착각으로부터 일어난 일이었다.

"어... 야, 받을 줄 몰랐는데."

그 애의 이름이 장례식장의 고인과 이름이 똑같았던 것도. 하필이면 내 휴대폰을 통해 그 부

고 문자가 들어오게 된 것도.

“그냥. 오랜만에 졸업앨범 보는데 너 생각이 나더라. 설마하니 지금까지 번호 안 바꿨을 줄은... 잘 지냈냐? 오랜만에 전화하니까 네 목소리인 줄도 모르겠다.”

착각이자 우연. 그것들이 겹쳐 보낸 오늘 하루가 절정에 치달는 순간. 왈칵 솟는 눈물에 순간 나는 말을 잃었다.

“야 이 미친 새끼야!!!”

한 마디 욕과 함께 오늘 하루 있었던, 힘들었던 마음이 차차 녹아간다. 야속하면서도 다행이라 안도감이 찾아온다

친구는 당황한 듯 어쩔 줄 몰라한다.

나만 작게 그리고 반복해서 “다행이다. 다행이야. 죽지 않아서 정말 다행이야.”라고 외친다.

난장판이 되어있던 마음을 하나씩 정리하듯 추스르며 집을 향해 다시 돌아간다.

“무... 무슨 소리하는 거야, 너?”

“사실은 방금 너 장례식장에 다녀온 참이거든”

“뭐?”

“방금 너 이름 000으로 된 장례식에 갔다왔다고 이 자식아!”

아직도 어안이 병병한 듯 어쩔 줄 몰라하는 친구에게 자초지종을 설명했다.

“아, 어제 문자로 너 이름으로 된 분 부고문을 받았거든. 그래서 당연히 나는 넌 줄 알았고 부리나케 달려왔어. 그런데 죽은 줄만 알았던 너와 이렇게 통화하니 내 정신이 정상일리 있겠냐?!”

그제서야 친구도 이해를 한 듯 떨림이 멈추었다.

“와... 그런 일이 있었다고? 참, 우연도 그런 우연이 없다. 너도 문자받고 얼마나 놀랐겠냐.”

그 후로 약 두 시간 동안의 통화를 마친 후 우리는 다음주 만날 약속을 잡은 뒤 통화를 마쳤다. 살면서 한 번쯤은 상상하던 일이 나에게 일어났다는 것이 신기하면서도 야속했다. 하지만 결국은 해피엔딩 아닌가? 내 소중한 친구와 추억을 지속할 수 있다는 것이 내 인생에 있어 이토록 값진 것임을 깨닫고야 말았다. 이제야 나로서 당당히 집으로 돌아갈 수 있을 것 같다.

‘고맙다, 친구야. 살아있어줘서.’